

『조선예술』 1991년 북한연극 읽기

- 인형극, 어린이 교육, 인간의 의리 -

연극계는 <로동계급을 형상한 연극작품을 무대에>라는 글로 새해를 시작한다. 90년 ‘현실주제’에 비해 그 형상대상이 구체화 된다. 이외 ‘사회주의 현실을 반영한 작품의 창조’, ‘사이극과 재담 등 화술소품의 창작’은 90년의 연장선이다. 이외 김일성의 업적을 형상한 혁명연극 <승리의 기치따라>를 창조하려 하는데, 이는 90년에도 언급되었기에 준비 중인 것으로 짐작된다. 이외 인형극계의 움직임이 포착된다. **인형극계**는 김정숙이 들려준 이야기 《토끼의 뉘우침》과 어린이들의 지덕체교양에 도움이 될 작품창작을 계획한다.

특집 : 인형극, <셋째의 착한마음>, 황금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의리이다.

4월 인형극 《셋째의 착한마음》에 대한 리종철의 평을 통해 작품의 주제를 확인할 수 있다. 주제는 ‘황금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의리’로 정리되는데, 북한은 청소년뿐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시 할 것을 교육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형극도 《성황당》식 창작법을 따르고 있음이 발견된다. 이 인형극은 ‘흐름식입체무대미술’을 도입하면서 좌우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흐르게 함으로 상찬된다. 원칙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의 창조적 변형이 평자의 시각을 사로잡은 것이다.

배우는 배우, 어린이에게는 스펙터클을 강조

인형극 관련 수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북한 배우들의 욕망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4월 배우 차진매의 수기에는, 잠시 그가 인형이 아니라 자신의 얼굴로 관객과 대면하고 싶었다는 갈등이 실려 있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와 무관하게 배우의 속성을 말해주는 글이며, 남북한 배우 모두에게 공통되는 갈등일 수 있다. 또한 남한이 그렇듯이 북한에서도 어린이 인형극에서는 볼거리와 들을 거리를 강조하고 있다. 4월 배우 최병숙은 <인물성격에 맞는 화술과 연기형상을 창조하기까지>라는 제목을 글을 기고했다. 그는 변신하는 도깨비를 맡아 백발할미와 도깨비 화술의 어려움을 밝히면서, 창작자들의 도움과 증폭기의 사용으로 어려움을 해결했다고 밝힌다. 지루하지 않게 극을 이끌어가는 원리는 남북한이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것

1991년 연극계는 인형극 공연에 집중한다. ‘개인’의 욕망을 자제하고 ‘전체’를 우선시 할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90년과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성황당>식 연극창작법의 창조적 적용이, 특히 아동극에서 스펙터클이 강조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의 착한마음>은 10만 여명에 달하는 학생소년과 근로자들이 관람했다고 기록되며, 대단한 방향을 거두었다고 한다. 한편 김일성을 형상화하는 연극 <승리의 기치따라>는 준비중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비해 가극계는 여전히 조용하다.

김정수